



inside 부산금융

INSIDE BUSAN FINANCE

inside **BIFC**

권두칼럼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부산금융중심지의 날개, 가덕도신공항

전문가 인터뷰

BNK경제연구원 원장 정영두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inside **FINANCE**

국내 금융제도 현황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추진계획

특화금융시장 동향

2021년 파생상품시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Vol. 26

www.kbfc.or.kr

inside 부산금융

INSIDE BUSAN FINANCE

CONTENTS

inside BIFC

- 04 권두칼럼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 06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부산금융중심지의 날개, 가덕도신공항
- 08 전문가 인터뷰
BNK경제연구원 원장 정영두
- 12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 14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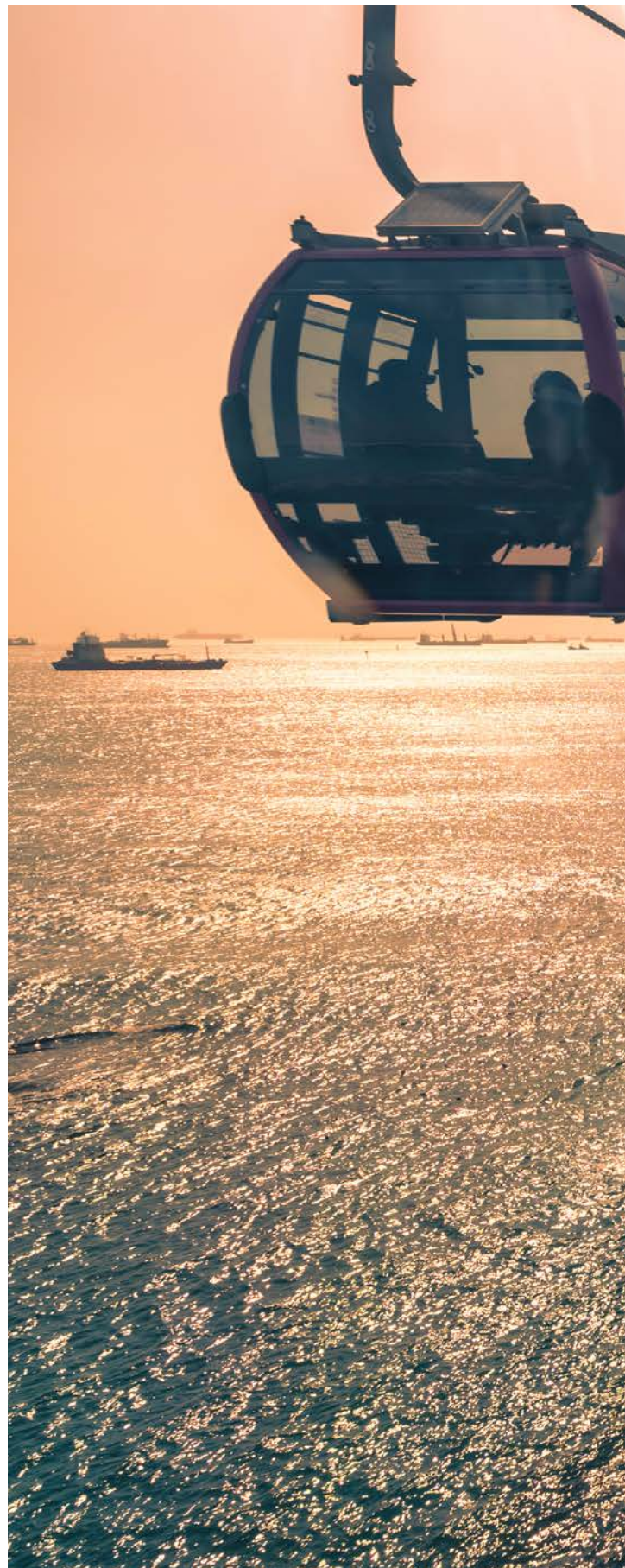
inside FINANCE

- 16 국내 금융제도 현황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추진계획
- 20 특화금융시장 동향
2021년 파생상품시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inside APPENDIX

- 24 부산 일반 현황
- 25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26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발행일 2021년 6월
발행처 부산국제금융진흥원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TEL. 051-647-9052 FAX. 051-633-0398 www.kbfc.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51.636.1215 www.ggad.co.kr





송도 구름다리 와 케이블카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부산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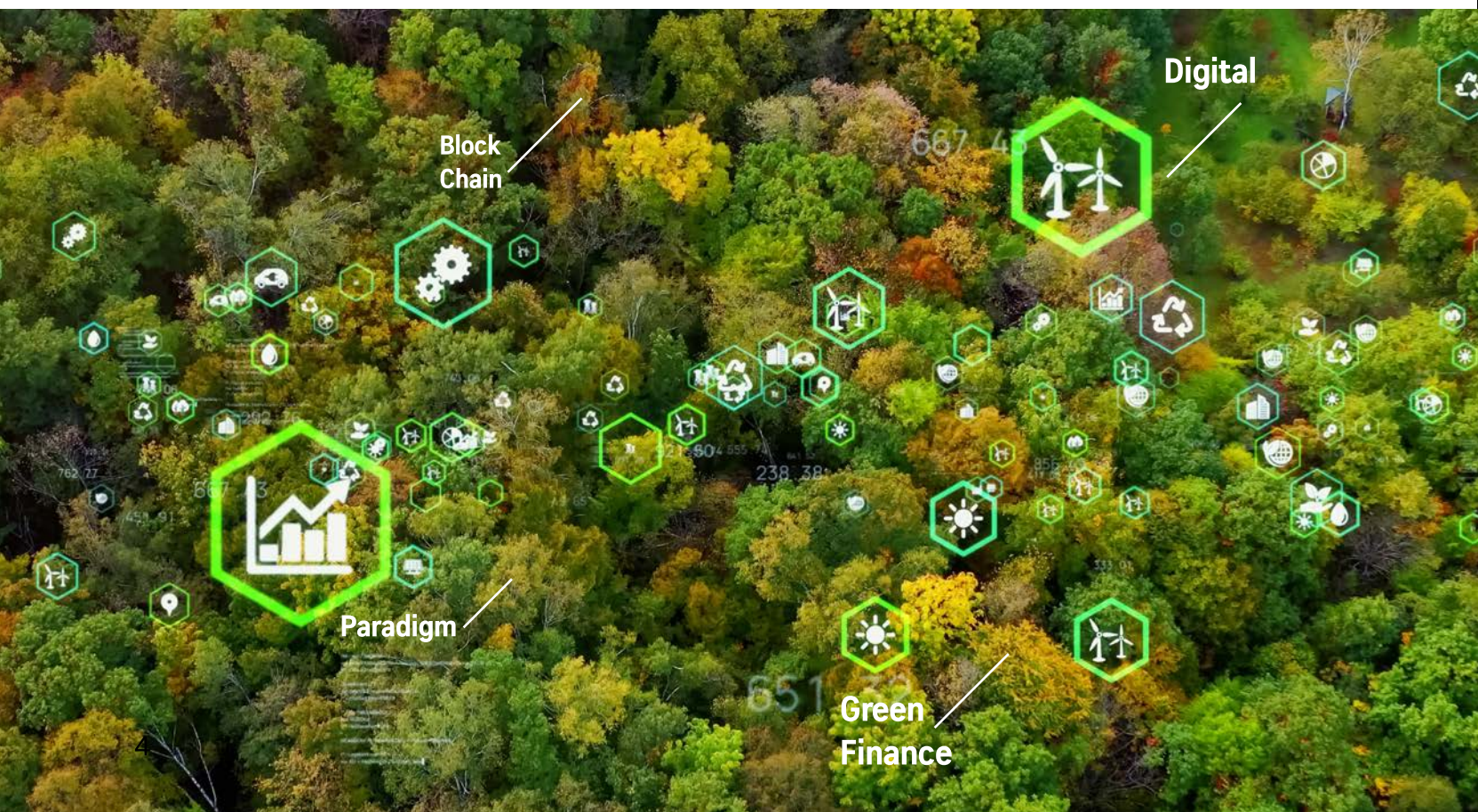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부산에 새로운 변화를 일구라는 시대적 요구와 부산시민의 역사적 선택을 받고 고향 부산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부산시민으로서 후보 시절 이전부터 『시민의 행복』과 『부산의 미래』라는 두 가지 명제를 두고 끊임없는 고민을 해왔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삶의 질 도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일자리 주거 여가 학습 문화 복지 등이 고루 균형 있게 장착되는 도시가 “삶의 질 선진도시”이다. 특히 삶의 질 선진도시란 무엇보다 기후변화라는 보편적 문명사적 조건에 부응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생태의 가치가 녹아들게 해야 하며, 이 생태의 가치는 과학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린 스마트 도시』를 그 비전으로 세우고자 한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에 방점을 두어야 할까?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스스로의 질문 속에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였지만 결국 해답은 “경제적 선



진도시”라는 다소 진부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시대를 아울러 변함없는 진리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고민 끝에 내린 “삶의 질 선진도시”와 “경제적 선진도시”를 두 개의 축으로 삼아 미래의 부산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학협력을 전면화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아이 기르기 좋은 부산, 매력 있는 청년 문화가 꽃피는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15분 거리 안에서 모든 일상활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며, 친환경 첨단 미래교통기술인 어반루프를 비롯해 다층적인 교통체계로 15분이면 부산 어느 곳에서도 도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5분형 도시는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그린 스마트 도시를 실현하는 구상이다.

활력 있는 경제, 첨단 미래기술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더욱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뒷받침해 줄 금융지원이 든든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부산은 이미 2009년 중앙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그동안 어려운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외형상의 틀은 갖추어 가고 있다.

이제 부산은 세계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 세계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는 『디지털 혁신 금융』과 『녹색금융』의 급부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녹색 금융은 부산의 도시비전인 『그린 스마트 도시』와도 그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핀테크, 인터넷 은행 등 비대면 금융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앞서가고 있으며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상자산의 급부상과 금융 신기술 발전으로 금융산업은 엄청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부산은 2019년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정책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금융산업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¹⁾에 가입을 신청했다 한다. 부산은 이에 앞서 발빠르게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FC4S(Financial Centers for Sustainability)²⁾에 가입을 완료하여 국제금융도시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금융을 통한 지속가능한 금융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글로벌 컨설팅사 지엔이 지난 4월 발표한 국제녹색금융지수(GGFI, Global Green Finance Index)에 부산이 31위로 첫 순위권에 진입하였다. 이에 앞서 3월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도 지난해 3월 51위에서 올해 36위로 상승하는 등 부산의 국제적인 금융인지도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금융중심지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혁신』과 『녹색금융』이라는 세계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혁신해 나간다면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로 70개국 90개 기관, 14개 국제기구가 참여 중임(본부:파리)

2)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금융네트워크로 UN환경프로그램(UNEP)이 금융허브도시들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2018년 발족(본부:제네바). 뉴욕, 파리, 런던 등 34개 국제금융도시 가입



부산금융중심지의 날개, 가덕도신공항

금융중심지의 경쟁력과 비즈니스 인프라의 중요성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14가지 주요 평가요소 중 상위 4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Yeandle M. Mainelli M., Berendt A. - The competitive Position of London as a Global Financial Centre, Z/Yen Limited, Corporation of London).

1. 전문 금융 인력(Availability of Skilled Personnel)
2. 금융 규제 환경(Regulatory Environment)
3. 국제금융센터 접근성(Access to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4. 비즈니스 인프라(Availability of Business Infrastructure)

4번째로 중요한 평가 요소인 비즈니스 인프라에는 교통(transport links)과 통신 및 IT시설(telecommunications and IT infrastructure)이 포함됩니다.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공항은 그 중에서도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산금융중심지의 교통망에 날개를 달아줄 가덕도신공항의 건설 계획과 기대효과를 개관해 봅니다.

· 추진경과 ·

'02.04.15.

중국민항기 김해 돛대산 충돌 사고
(사망 129, 부상 37)

'06.12.

노무현 대통령 남부권 신공항 공식 검토 지시

'17.05.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 최근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부합한 수용능력 확보와 인천공항의 재난 발생 시 대체공항 기능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서의 동남권 공항 건설 필요

'19.06.20.

김해신공항 문제 총리실 이관 합의
(부·울·경 단체장, 국토부장관)

'19.12.~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출범 및 검증

* 총21명(위원장1명, 위원 20명) > 안전, 환경, 소음, 시설 운영수요 각 5명

'20.11.20./11.26.

여야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21.02.26.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본회의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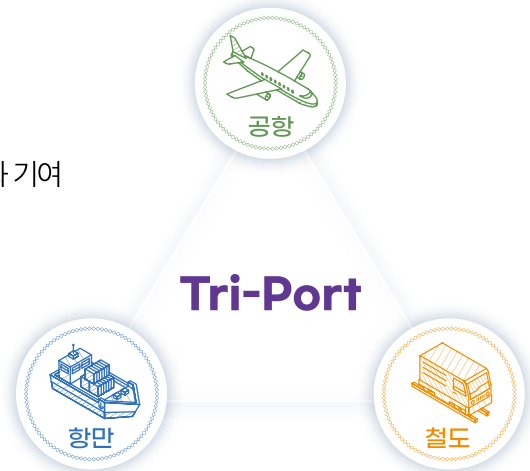
'21.03.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시행 '21.09.17.]



01. 24시간 국제공항의 필요성 국제금융중심지의 핵심인프라 구축

- 수도권 일극화를 해결하고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보완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및 국제관광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Tri-Port(공항, 철도, 항만 연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부상
- 수도권과 함께 국토균형발전 양대 축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 해외 주요 금융도시와의 직항로 확대로 금융중심지의 접근성 제고



02. 건설방향 24시간 친환경 국제공항 건설

- 소음피해없이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
- 장애물이 없이 안전하고 중장거리 운항 제한 없는 공항
-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항
- 미래수요에 대비한 확장성과 우수한 접근성이 있는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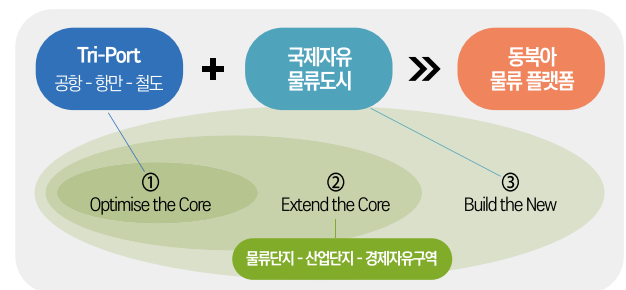
규모 활주로 1본(3.5km), 여객 및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사업비: 7,54조원)
용량 여객 연간 3,500만명, 화물 99만톤

03. 향후계획 Fast Track 가동 ⇒ 2029.12. 개항 목표



04. 기대효과

- 글로벌 물류허브와 국제금융도시 인프라의 완성
- 신항 배후권역에 Tri-Port와 물류·산업 단지 및 국제금융센터를 연계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공항을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와
국제금융도시 인프라의 완성





금융산업의 ESG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 윤리·투명 경영을 강조하는 ESG가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



BNK경제연구원 원장
정영두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함

Q 최근 BNK경제연구원의 변화된 역할과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BNK금융그룹의 경영전략 및 발전방안 도출과 동남권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동남권 주력산업 및 경제사회 전반을 진단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새롭게 ESG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일 것입니다. BNK금융그룹의 ESG 추진뿐만 아니라 동남권 기업들의 ESG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앞서 언급하신대로 최근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ESG에 대한 대응속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ESG가 무엇이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 윤리·투명 경영을 강조하는 ESG가 지구적 화두가 되고 기업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영어 단어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3가지 핵심 비재무적 지표를 말합니다.

영문자 E(환경)는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기업 경영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S(사회)는 사회공헌, 고객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G(지배구조)는 지배구조

의 독립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ESG 중에서도 환경부문은 가장 주목받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규제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재앙과 코로나19 등 유행성 질병을 보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과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를 거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 더 나아가 1.5°C 이하 억제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드는 탄소 중립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등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으로부터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올해는 UN이 ‘사실상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75개 나라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보면, 지구 평균 온도는 1880년부터 2012년까지 0.85°C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8°C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보다 더 짧은 기간에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 흐름은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에서 우리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더욱 상향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는 기존 목표보다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의 흐름은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EU는 올해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 당 0.8유로(약 1,08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신설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EU 플라스틱 수출은 20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EU와 미국은 탄소 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제품을 수입할 때, 규제 격차에 따른 가격 보전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원자재, 부품조달 업체의 환경과 인권까지 점검하는 '공급망 실사제도'가 도입되면 협력 관계에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소기업으로 ESG 규제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탄소세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대로 시행된다면, 2022년부터 무연탄 1kg 사용에 199원의 탄소세를 내야합니다.

Q 환경규제 문제는 금융산업 성장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후변화는 환경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생태계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며 이는 더 나아가 금융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없으면 국내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2019년 12.4%에서 2029년 4.7%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기후 리스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부실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산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 제조업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지만,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금융에 대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투자를 중단하라는 투자기관의 압력 또한 강합니다.

금융을 통한 우회 규제 흐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들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ESG 이슈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주주권 행사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도 ESG 투자 비율을 전체 자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ESG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이 모인 Business Roundtable(BRT)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넘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함께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입니다.



Q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산업구조는 탄소배출이 많은 전통 제조업 중심인 만큼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권의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동남권은 그동안 중후장대형 제조업 메카로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기계, 금속 등은 온실가스 감축 대응이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교훈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규제의 파고와 ESG 전환 또한 상생협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ESG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경제의 구조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친환경 신기술 개발, 제조업의 첨단화, 사회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력, 특히 동남권 같은 탄소중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ESG 전환과정에는 금융지원 및 투자는 필수적인 만큼 부산금융중심지와 연계 발전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기업도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중후장대형 제조기업과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ESG 전환에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저희 BNK금융그룹은 ESG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ESG 채권발행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ESG 전환에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ESG 전환을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ESG

①

부산시, 2021년 3월 기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6위로 4단계 상승

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런던의 금융중심지인 시티오브런던이 후원하고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Z/Yen사가 매년 3월, 9월 두 차례 평가해 발표함

주요내용 부산시의 GFCI 순위가 2020년 9월 40위에서 2021년 3월 36위로 4단계* 상승함

*부산순위 변동 : 51위('20. 3월) → 40위('20. 9월) → 36위('21. 3월)

분석 지난해 12월 금융중심지 부산의 랜드마크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 시티은행 등 해외금융기업을 유치하였으며, BIFC 3단계 개발, 블록체인특구의 강점을 살린 핀테크 산업 집중 육성,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을 통한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이 순위 상승요인으로 분석됨



②

부산국제금융진흥원, 2021년 5월 14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금융네트워크(FC4S) 34번째 정식 회원으로 가입

**FC4S** (Financial Centres for Sustainability)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안건과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전 세계 약 30여개 국제금융센터들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산하 단체임. 현재 금융 부문에서의 지속가능 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국제금융센터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가입도시 뉴욕, 런던, 토론토 등 세계주요 금융도시뿐만 아니라 아시아(서울, 상하이, 홍콩, 도쿄 등), 유럽(파리, 리스본, 룩셈부르크, 마드리드, 밀라노 등), 남미(멕시코 시티, 리우데자네이루), 아프리카(라고스, 나이로비)등 세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친환경 금융네트워크 임

3

부산시, 2021년 4월 기준 국제녹색금융지수(GGFI) 31위 기록

GGFI (Global Green Finance Index)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국제금융도시가 추구해야 할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컨설팅 기관인 Z/Yen사는 2018년 3월부터 국제녹색금융지수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4월 29일 발표된 7번째 평가에서 부산시가 처음으로 31위의 순위권에 진입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녹색금융에 경쟁력을 지닌 상위 10개 도시 중 8개가 서유럽 도시이며, 암스테르담이 1위임. 로스엔젤레스가 10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하였으며, 서울은 22위에 위치하고,

부산은 순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함

분석 부산시의 친환경 수변도시인 에코델타시티 착공 및 IoT에 기반한 해운대그린시티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한국거래소를 통한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 채권 발행, 부산은행의 지속가능채권 발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녹색보증사업 추진 등 지역 주요기관들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이 국제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4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방문

일시/장소

2021. 5. 13.(목)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BIFC)

주요내용

금융중심지 간 지역교류 강화 및 지속가능 금융 등 실질 협력 증진방안 논의



5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 출범 기념 세미나

일시/장소 2021. 5. 25.(화)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BIFC)

주최/주관 한국거래소

주요내용 국내·외 CCP동향 및 향후 과제, KRX 청산결제본부의 중장기 발전방향, 청산결제본부와 금융중심지 부산의 동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전문가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KRX청산결제본부가 금융중심지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유관기관, 학교,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강구가 필요함을 강조함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G20 합의사항인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기대

01 TR이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전체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systemic risk)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방대한 거래규모는 금융기관의 손실가능성을 높이고 그 손실의 전이가가능성도 높였지만,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위기 당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G20 정상회의(미국 피츠버그, 9.24~25)에서 각국 정상들은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규제 관련 '09년 G20 합의사항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All standardized OTC derivatives)

- ① 가급적(where appropriate),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
- ② 청산기관(CCP)을 통한 청산

모든 장외파생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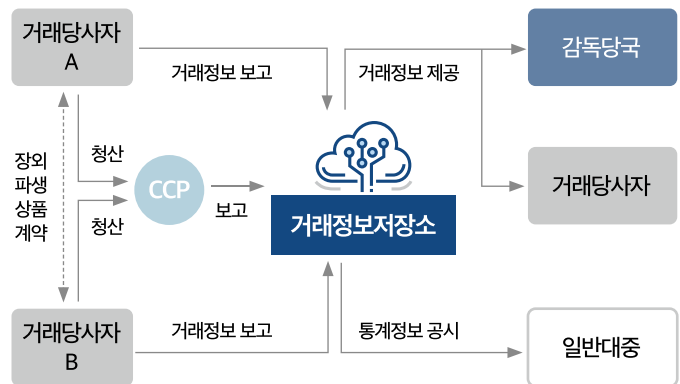
- ③ 반드시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

청산기관에서 청산되지 않는 상품 (Non-centrally cleared contracts)

- ④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Higher capital requirement) 적용 통해 거래



거래정보저장소의 기능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이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이를 집계·가공하여 감독당국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SSS),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를 말하며, 국제기구(CPSS-IOSCO)는 금융시장인프라가 갖춰야 할 원칙(PFMI; Principles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을 수립함으로써 금융시장인프라의 올바른 위험관리 및 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PFMI를 준수하며 TR을 도입하는 것이 대내·외 신인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02 TR 도입 경과 및 주요 보고제도

한국거래소는 2015년 8월 금융위원회의 “TR 선정위원회”를 통해 국내 TR사업자로 선정된 이래 TR 관련 규정 및 제도, 시스템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그간 노력의 결과, 2021년 4월 1일 TR 의무보고 및 TR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이하 KRX-TR)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고제도를 수립하여 국제정합성을 제고하였고,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보고의무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였다. 특히,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KRX-TR의 주요 보고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보고의무기관은 금융투자업자(겸영 금융투자업자 포함)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며, 각 보고의무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거래를 체결한 날(거래일, T일) 다음 영업일 24시까지 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는 계약서에 포함된 기본적인 정보, 대상상품 및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 손익 분석에 필요한 평가(valuation)에 관한 정보, 거래당사자 간 주고받는 담보(collateral)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보고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첫째, 보고업무의 제3자 위탁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직접보고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보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청산거래(적격원화이자율스왑)의 경우 국내 장외CCP로 청산등록이 완료되면 TR에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청산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기관의 TR 보고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의 TR 도입 시점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12.12월	'14.2월	'13.4월	'14.4월	'15.7월	'13.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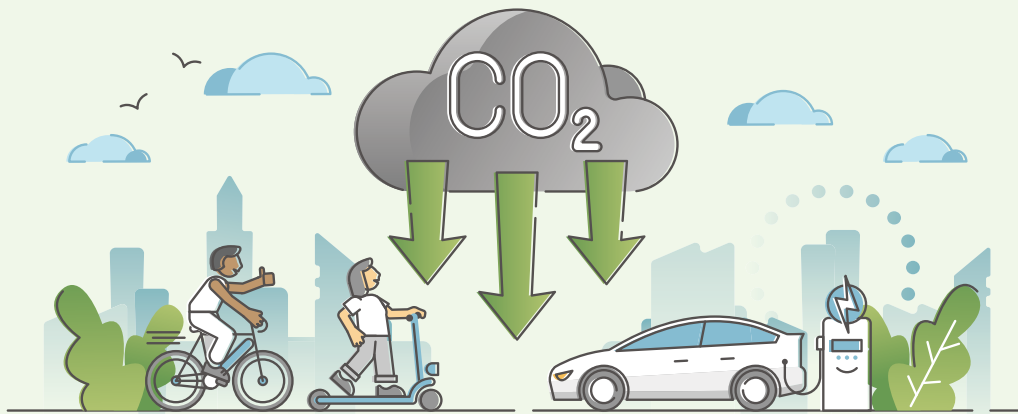
한편, KRX-TR은 고품질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2단계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 검증(validation process)은 개별 거래기록의 형식적 정확성 및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데이터 검증 단계를 정상적으로 통과해야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데이터 정합성 관리(pairing & reconciliation process)는 양 거래당사자가 보고한 거래기록이 동일한 거래에 관한 보고인지 확인하는 연결과정과 중요 보고항목을 상호 대조하여 보고내용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대사과정으로 구성된다. KRX-TR은 이러한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금융당국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03 TR 도입의 기대효과 등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은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TR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노출 및 위험집중도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시장 전체의 구조적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관리 능력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선제적 또는 적시 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의 세부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기관별, 시스템별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장외파생상품 관련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TR은 시장의 리스크를 낮추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KRX-TR 홈페이지(<http://tr.krx.co.kr>)에서는 TR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기관의 보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시장통계도 공시할 예정이므로 일반인들도 KRX-TR 홈페이지에서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추진계획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0년에 시작된 녹색분야를 둘러싼 금융권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이 포함되면서, 녹색산업·기업·사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선언(20.12월)에 따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을 뒷

받침하는 금융권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의 녹색분야 논의가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0.8월 민관합동의 「녹색금융 추진TF*」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환경부 합동TF 산하에 ①기후리스크 평가·관리, ②녹색투자 활성화, ③기업공시 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 작업반을 구성·운영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2020년에 시작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연초에 발표한 12개 세부과제 이행 계획을 담은
2021년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01

공공부문 역할 강화

①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30년 약 13%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 마련('21. 상반기)
-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검토

*예) ①녹색 특별대출(산·기·수은, 우대금리 최대 1%p), ②녹색기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4%p 우대), ③특별온렌딩(일반온렌딩 대비 0.1%p 인하) 등

②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기 신설('21.1월)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중
- 전담조직 정착을 통해 녹색금융·한국판뉴딜 관련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하여 구체적 성과 시현을 도모

③ 정책금융기관 간「그린금융협의회」신설

- 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를 추진
-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 등 지원
- 그린금융협의회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④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 환경부 소관 수계(水系, drainage system)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개정 추진 ('21. 하반기)

*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시에도 녹색금융지표 반영 예정

<수계기금 운용사 선정 관련 주요내용>

- ▶ (규모) 수계기금* 운용 총액 약 2,800억원 (20년 기준, 누계금액)
* 금강(311억), 낙동강(177억), 영산강·섬진강(332억), 한강(1,972억)
- ▶ (방식) 자산운용지침 개정 → 기금 운용사 선정지표에 “친환경 투자 실적” 추가
- ▶ (지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



02

민간금융 활성화

⑤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마련

-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 마련*(21. 상반기)

<녹색분류체계(초안) 주요 내용>

- ▶ (주요 대상)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대 분야*, 81개 경제활동 도출(20.11.)
 - * EU, ISO, 중국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 선정
- ▶ (기술적기준)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threshold) 단계적 마련
- ▶ (환경법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 준수해야 할 환경법규 구체화
 - * EU : DNSH(Do No Significant Harm)원칙으로 준수대상 환경 법규 제시



⑥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21. 1분기)

<녹색금융 모범규준(초안) 주요 내용(안)>

- ▶ (분류기준)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非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하여 금융권 분류기준* 마련
 - * 현재 비일관적인 녹색금융통계를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구축 기대
- ▶ (투자전략) 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 제시
- ▶ (리스크관리·공시)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리스크 점검방식, 공시 확대 기본방향 등 규율
- ▶ (추진체계)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금융 추진조직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확립을 위해 Best-Practice 제시
- ▶ (면책) 적극적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 마련 등

⑦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12월 발표)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

* 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녹색채권이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발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핵심요소) ①자금 사용처, ②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③자금관리, ④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
- ▶ (대상사업)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세부 예시사업 제시
- ▶ (외부검토)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20.6월 개설)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전 외부검토 의무화 및 발행후 보고시 외부검토 권고

⑧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 수립(21.3월)
- 중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규제 및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21.2분기)

03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⑨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 의무의 단계적 강화 계획 수립(21.1분기)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 단계적 강화 계획>

- ▶ [1단계(‘25)]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거래소, ’21.1월)」을 제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年20% 증가 목표)
- ▶ [2단계(‘25~’30)]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약 211社 이상 의무화+자율공시 정착·확산)
- ▶ [3단계(‘30~)]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 ▶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제시
- ▶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 ▶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⑩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방향 검토(21. 4분기)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 (국내) ’21.1월 기준 139개 기관이 채택·시행중

⑪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 국내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 설계(21. 상반기)

* 현재 환경부문 ESG 표준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추진 중(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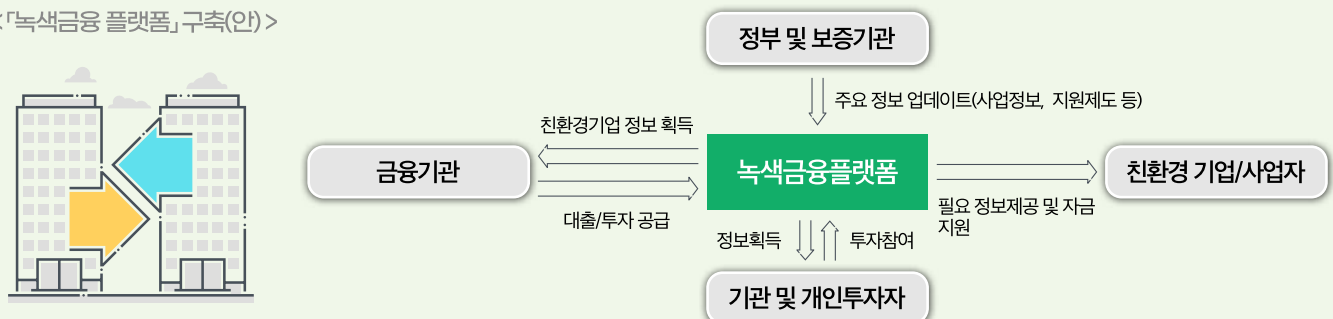
<환경 표준평가체계(안) 주요내용>

- ▶ (평가지표) 국내의 ESG 평가모형, 환경정보 공개 현황 등을 고려한 지표 설정
- ▶ (산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평가산식 구성
- ▶ (활용) 공공부문의 환경성 평가(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등)에 산식 활용 및 민간 금융기관이 참고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⑫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녹색금융 플랫폼」 구축을 검토(21. 상반기)
-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에 대해 녹색기업·사업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녹색투자 환경 조성

<「녹색금융 플랫폼」구축(안)>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제3차 녹색금융 추진 TF 전체회의'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 보도자료 2021.01.25.

2021년 파생상품시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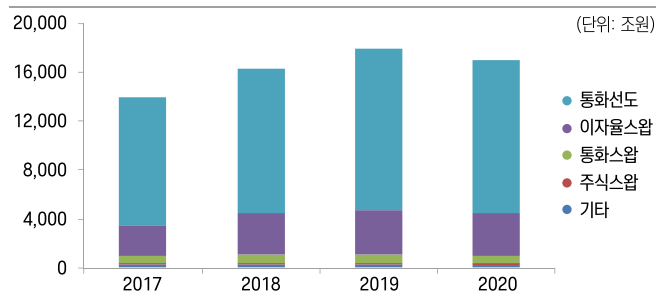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이민규



01 장외파생상품시장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각국의 금융당국은 동일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 CCP)를 통하여 청산되도록 하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는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각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탄생한 CCP는, 한국의 경우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다 지난 4월 19일에는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 CCP 기능을 수행하는 청산결제본부가 신설되었다. 향후에는 독립된 청산결제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CCP 기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세부정보를 중앙 집중화하여 보관 및 관리하는 TR도 지난 4월 1일에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러한 파생금융 인프라를 통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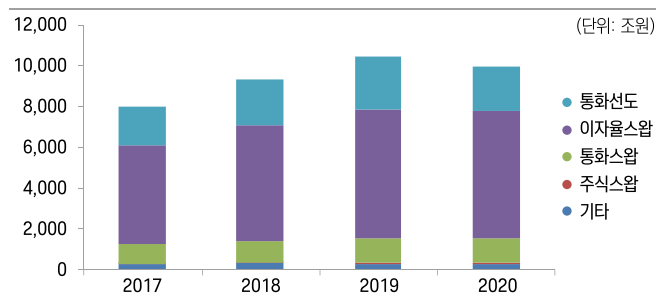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대금



* 금융감독원이 게시하는 통계치를 가공하여 작성함.

최근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2020년의 거래규모는 1경 7,019조원으로 전년(1경 7,945조원)에 비하여 926조원(5.2%) 감소하였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통화선도 및 이자율스왑 거래 금액 감소를 들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여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글로벌 교역이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글로벌 교역 감소로 인하여 외화 관련 헤지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통화선도 거래금액이 전년에 비하여 657조원 감소하였다. 또한 2020년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3월: 1.25%→0.75%, 5월: 0.75%→0.5%) 이후 금리 변동성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금리 관련 헤지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율스왑 거래금액이 전년에 비하여 155조원 감소하였다.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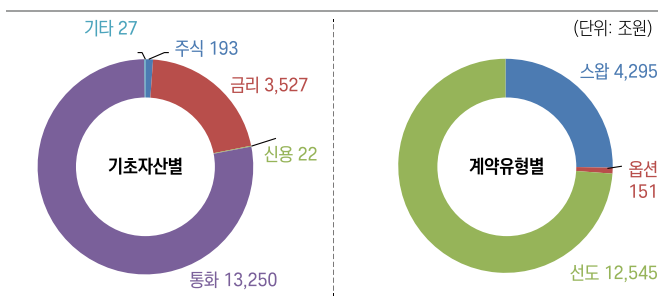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이 게시하는 통계치를 가공하여 작성함.

특정시점에서의 미청산금액을 나타내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최근 증가하여 왔으나 2020년의 거래잔액은 9,935조원으로 전년 말(1경 435조원)에 비하여 500조원(4.8%) 감

소하였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감소 원인과 마찬가지로 통화선도 및 이자율스왑 거래잔액 감소를 들 수 있다. 통화선도 거래잔액은 전년에 비하여 433조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율스왑 거래잔액은 전년에 비하여 38조원 감소하였다.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를 기초자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통화와 금리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금액이 각각 1경 3,250조원(77.9%)과 3,527조원(20.7%)으로 이 둘이 전체 거래대금의 대부분(98.6%)을 차지한다. 주식, 신용, 기타 귀금속 상품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대금 비중 합계는 1.43%로 전체 거래대금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대금은 193조원으로 전년(207조원)에 비하여 14조원(6.7%)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2020년 주식시장의 호황을 들 수 있다.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각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하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주식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주식시장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ELS)에 대한 투자유인이 감소하였고 ELS 발행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라 ELS 헤지 목적의 주식스왑 거래도 감소하게 된 것이다.

기초자산 및 계약유형별 장외파생상품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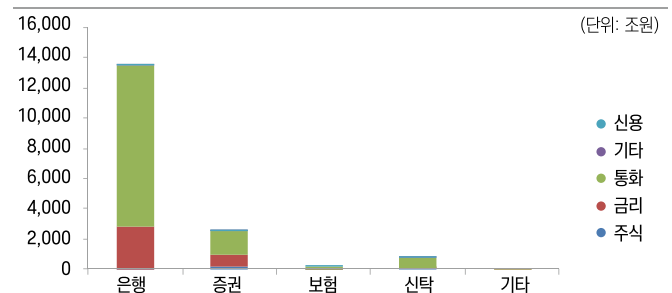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이 게시하는 통계치를 가공하여 작성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를 계약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도계약과 스왑의 거래금액이 각각 1경 2,545조원(73.8%)과 4,295조원(25.3%)으로 이 둘이 전체 거래대금의 대부분(99.1%)을 차지하고 있으며 옵션은 151조원(0.9%)에 불과하

다. 이렇게 선도계약과 스왑의 거래대금 비중이 높은 것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일반적인 위험관리 방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환율변동위험의 경우는 선도계약을 통해, 금리위험의 경우는 스왑을 통해 각각의 위험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를 금융권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은행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은행은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1경 745조원, 금리 관련 장외파생상품 2,778조원 등 총 1경 3,535조원을 거래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거래대금의 79.5%에 해당한다. 증권은 전체 거래대금에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증권은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1,610조원, 금리 관련 장외파생상품 739조원 등 총 2,560조원을 거래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거래대금의 15.0%에 해당한다. 2021년 장외파생상품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원고를 작성하는 현재 시점에서 2021년이 끝나기까지는 많은 거래일이 남아있다. 현재 시점에서 많은 거래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예측과 2021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실제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시점의 정보를 토대로 예측을 해본다면, 2021년 장외파생상품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현재에는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 감소 요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다.

금융권역별 장외파생상품 거래대금



* 금융감독원이 게시하는 통계치를 가공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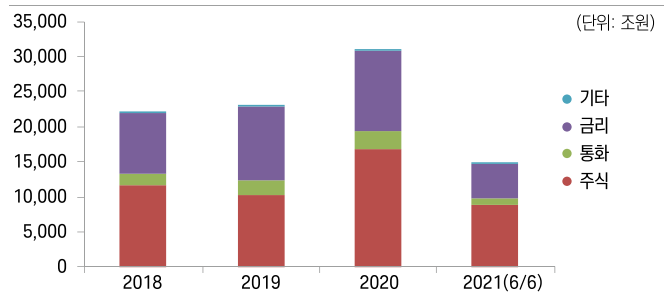
02 장내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은 1996년에 개설된 후 2010년에는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의 영향으로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일 평균 거래대금은 66.3조원이었으나 이후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일 평균 거래대금은 37.2조원이 되기에 이르렀다. 2014년 이후로는 감소된 거래대금이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의 파생상품시장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감소하였다.

또한 기관 거래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증가하였다.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에 의한 규제 강화로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떠난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의 장내파생상품시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계점으로는 KOSPI200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해외 선진 거래소에 비하여 상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의 시장 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파생상품시장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당국이 발표하게 된다. 2019년 정책당국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실무에서 이에 대한 여러 과제들이 검토를 거치거나 실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수요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는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 시장조성기능 강화,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2경 1,961조원, 2019년 2경 2,888조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3경 709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

였다가 이후 빠르게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경험하였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 거래대금

* 한국거래소가 게시하는 통계치를 가공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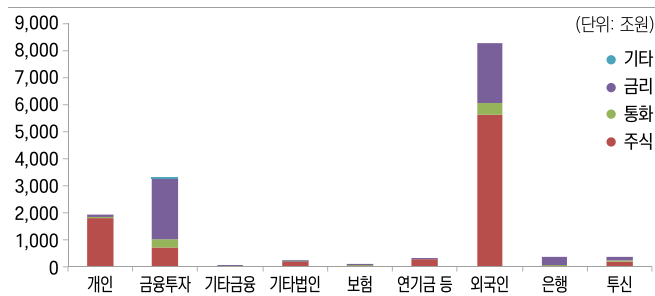
또한 큰 폭의 시장 하락을 기회로 판단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였고 주식시장의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과 관련된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 또한 커져서 2020년에는 장내파생상품시장 거래대금이 전년에 비하여 큰 폭(34.2%)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원고를 작성하는 6월 6일까지의) 장내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는 1경 4,813조원으로 현재와 같은 흐름이 12월까지 유지되면 2021년의 거래규모도 2020년에 비하여 크게(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2021년의 거래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예측과 2021년의 장내파생상품시장 결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시점의 정보를 토대로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까지(원고를 작성하는 6월 6일까지) 2020년에 시작된 주식시장 호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에 큰 규모의 성장을 보인 이유와 마찬가지로, 2021년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전망도 밝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기초자산별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은 전년에 비하여 주식 관련 파생상품 비중은 증가하고 통화 관련 파생상품 비중과 금리 관련 파생상품 비중은 감소하였다. 주식 관련 파생상품 비중은 45.2%(2019년)에

서 54.6%(2020년)로 증가하였고 통화 관련 파생상품 비중은 8.9%(2019년)에서 8.2%(2020년), 금리 관련 파생상품 비중은 46.0%(2019년)에서 37.1%(2020년)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경험하였고 개인투자자의 지속적인 주식시장 진입 등을 이유로 주식시장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수요 또한 증가하여서 주식 관련 파생상품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 투자자별 거래대금 2021(6/6)



* 한국거래소가 게시하는 통계치를 가공하여 작성함.

장내파생상품시장의 2021년(원고를 작성하는 6월 6일까지) 투자자별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금리를 제외한 주식과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서 외국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크다.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외국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64.2%이고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외국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43.6%이다. 금리 관련 파생상품 거래대금 비중은 금융투자(45.0%)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외국인(43.6%)이다. 외국인, 개인투자자, 연기금, 투자신탁, 기타법인은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은행, 금융투자, 보험, 기타금융은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03 시사점

2021년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전년에 이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에 시작된 주식시장 호황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파생상품 수요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감소 요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난 4월에,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 CCP 기능을 수행하는 청산결제본부가 신설되었으며 역시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보관 및 관리하는 TR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해외의 경우, CCP와 같은 금융 인프라는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부산은, 이번 청산결제본부 신설과 TR 출범으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금융중심지 부산에 파생금융 기능을 포함하는 다양한 금융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어 부산이 파생상품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파생상품시장의 긍정적 기능은, 일부 상품이나 일부 거래자 유형에 유동성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때,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의 주가지수 상품에 대한 유동성 집중은 지금 시점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년에 시작된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한 파생상품 수요 증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적은 금이나 변동성 지수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외국인의 높은 파생상품시장 거래 비중을 완화할 수 있는, 파생상품시장 수요 공급 기반 확충 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의 파생상품시장은 호황을 맞은 주식시장과 함께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부록 INFO

- 부산 일반 현황
- 부산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부산 일반 현황

	기준	단위	통계	전국대비비중(%)
--	----	----	----	-----------

GRDP 규모

부산	2019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기준	십억원	92,445	4.8
부산·울산·경남		십억원	280,223	14.6
전국		십억원	1,923,977	100.0

부산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2019년, 지역내총부가가치 (기초가격)기준	%	0.4	1.1
제조업		%	17.6	3.1
건설업		%	6.8	5.4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73.8(7.0)	5.7(5.7)
광업·전기,가스,증기,수도		%	1.4	4.6
전산업합계		%	100.0	4.9

부산·울산·경남 GRDP산업별구성

농림어업	2019년, 지역내총부가가치 (기초가격)기준	%	1.7	13.8
제조업		%	37.2	19.2
건설업		%	5.8	13.7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53.3(4.7)	12.1(11.1)
광업·전기,가스,증기,수도		%	2.0	18.5
전산업합계		%	100.0	14.3

컨테이너 처리량

부산	2020년 중	천TEU	21,824	75.5
전국		천TEU	28,916	100.0

거주환경(부산)

면적	2020년 말		770	0.8
인구	2020년 말	명	3,391,946	6.5
기온	2020년 평균	℃	15.2	
강수량	2020년 중	mm	2,281.6	

외국인관련(부산)

외국인 등록인구	2019년 말	명	45,999	
외국인 학교	2020년 말	개	5	
외국인 관광객	2020년 말	만명	35.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¹⁾

기관명	2019년말	2020년말	증감
합계	2,216	2,091	-125
예금은행	567	528	-39
일반은행	448	408	-40
시중은행	219	195	-24
우리은행	50	45	-5
SC제일은행	14	12	-2
KB국민은행	72	60	-12
한국씨티은행	2	2	0
신한은행	38	37	-1
KEB하나은행	43	39	-4
지방은행	226	210	-16
대구은행	5	5	0
부산은행	209	193	-16
제주은행	1	1	0
경남은행	11	11	0
외은지점	3	3	0
아마구찌은행	1	1	0
중국공상은행	1	1	0
메트로은행	1	1	0
특수은행	119	120	1
IBK기업은행	41	42	1
NH농협은행	61	61	0
SH수협은행	13	13	0
한국산업은행	4	4	0
비은행금융기관	1,649	1,563	-86
수출입은행	1	1	0
신탁회사 ²⁾	636	593	-43
자산운용회사 ³⁾	654	614	-40
상호저축은행	28	28	0
신용협동조합 ⁴⁾	48	48	0
상호금융 ⁴⁾	22	22	0
새마을금고 ⁴⁾	140	140	0
우체국 ⁵⁾	120	117	-3

주

1) 출장소 포함

2)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신탁계정을 신탁회사로
지칭

3) 자산운용사 펀드상품의
판매점포수

4) 조합수(본소 기준) 또는
금고수 기준

5)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체신취급국 및 지방
우정청 제외



INFO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경과

- 2007년 12월 : 금융 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 2008년 04월 : 금융 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2008년 11월 : 금융 중심지 지정 신청(서울, 부산, 인천, 제주, 경기)
- 2009년 01월 : 해양·파생특화금융 중심지 '부산', 종합금융 중심지 '서울' 지정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 면적 : 102,352㎡
- 복합 사업개발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토지면적	24,856㎡	12,276㎡	10,292㎡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 및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상업시설 등	업무시설, 공공생활시설
건축규모	197,169㎡, 지하 4층, 지상 63층	183,132㎡, 지하 7층, 지상 49층·36층(U자형 2개동)	147,000㎡ 45층
사업기간	2008. 4 ~ 2014. 6	2015. 8 ~ 2018. 11	2020 ~ 2025(예정)
개발현황	2014.12월, 입주완료	2014.12월, 입주완료	-

- 개별 사업개발

구분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지하1층, 지상 4층	지하3층, 지상 23층
착공/준공	2009.02 / 2011.05	2011.01 / 2013.06	2011.12 / 2014.07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지원 체계도

금융 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장)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부산광역시 (서비스금융과)

부산 국제금융도시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

금융 중심지지원센터 (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유치, 금융중심지 조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FC)

부산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금융 관련 중·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주요 일지

• 부산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 2009년 7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 플랜 용역 실시
- 2010년 8월, 부산금융중심지를 해양·파생분야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010.5 한국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 2014년 6월,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복합개발사업(63층) 준공
※ 준공식 : 2014. 8. 22
- 2014년 말, 이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입주
※ 이전공공기관(5), 지역기관(3), 해양금융기관(4), 개별기관(3)
- 2015년 4월, 2020년까지 총 4개*부문 12개 과제 단계별 추진
(*해양파생특화 중심지 구축, 국제수준 금융 인프라 구축, 지역금융산업 활성화, 금융 중심지 기본환경 조성)
- 2015년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착공
- 2018년 11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준공
- 2020년 7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출범

•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 육성정책의 추진성과

<해양금융부문>

-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년 10월)
-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년 11월)
-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2014년 11월)
- 한국해양보증보험 보험업 인가(2015년 6월)
- 캄코선박운용 부산이전(2015년 6월)
- 한국선박해양 개소(2017년 4월)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파생금융부문>

-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년 2월)
- 금리스왑거래 청산업무(CCP) 개시(2014년 3월)
- 금거래소 개소(2014년 3월)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 개소(2015년 1월)
- 청산결제본부 출범(2021년 5월)

• 지역 내 금융관련 전문인력 확보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2014년 9월)

• 국제 금융관련 교육연구기능 확충

-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소 (2016년 9월)

•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국내외 이미지 제고

- 매년 2회 유럽·북미·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IR 실시
- 한국선박금융포럼,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등 국제회의 개최
 - ▷ IOMA(세계옵션시장협회) 총회 : 2013. 5. 5. ~ 7. 파라다이스호텔
 - ▷ FIA(국제선물산업협회)컨퍼런스 : 2013. 6. 12. ~ 13. 파라다이스호텔
 - ▷ ACSIC(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총회 : 2013. 11. 12. ~ 14. 조선호텔
 - ▷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 2015. 3. 26. ~ 29. 벅스코
 - ▷ FATF/APG(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 2016. 6. 18. ~ 24. 파라다이스호텔
 -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 2018. 5. 21. ~ 25. 벅스코

•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 중심지 내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과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조례 개정

*법인세 또는 소득세 : '18.12.31 -> '21.12.31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2항),

취득세 : '20.12.31→'23.12.31까지로 연장(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경감(부산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제3조)

BIFC 입주기관 현황

• 63층 메인빌딩

50층~62층	한국거래소	353명
55층	IBK창공	12명
53층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4명
	캠코선박운용(주)	14명
52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12명
	신한은행	5명
	부산국제금융연수원	2명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7명
	코스콤 부산센터	3명
	대한상사중재원, 이타해사 중재센터	3명
40층~47층, 3층	한국자산관리공사	610명
36층~39층, 5층	한국예탁결제원	345명
30층~35층, 4층	한국남부발전	462명
23층~27층, 12층~13층, 2층, 7층	한국주택금융공사	305명
22층	KSF선박금융	3명
	한국선박금융	2명
20층~22층	해양금융종합센터	76명
15층~19층, 10층~11층, 6층	주택도시보증공사	559명
14층	신용보증기금	49명
9층	부산은행	7명
	한국증권금융	6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명
8층	NH농협생명보험	139명
2층	NH농협은행	11명
	우리은행	10명
1층	국민은행(BIFC몰)	7명

• IFC부산

11층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3명
7층~10층	한국자산관리공사	84명

• 독립건물

기술보증기금	지상 15층, 지하 2층	328명
한국은행 부산본부	지상 4층, 지하 1층	69명
부산은행	지상 23층, 지하 3층	904명

BIFC 인센티브 제도

■ 외국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지역본부 신설	지점 신설	한국 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한국 내 지점 이전
		(국외 ▷ 부산)		(지역외 ▷ 부산)	
법인세 ¹⁾ 소득세 ¹⁾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1) 2)}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없음	
취득세 ³⁾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⁴⁾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⁴⁾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 국내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 창업	지역본부/지점 신설	본사이전	지역본부/지점 이전
				(지역외 ▷ 부산)	
법인세 ¹⁾ 소득세 ¹⁾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1) 2)}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없음	
취득세 ³⁾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⁴⁾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⁴⁾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 근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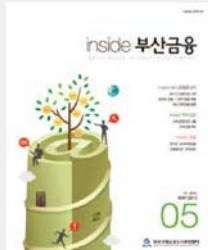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

2)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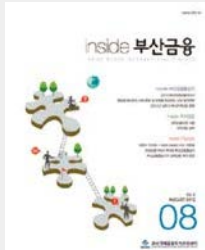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 제1항

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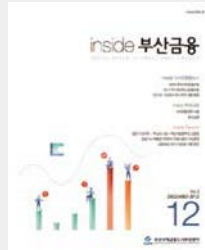
「inside 부산금융」 발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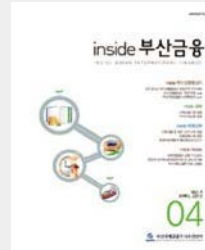
Vol.1 May 2012(창간호)



Vol.2 Augus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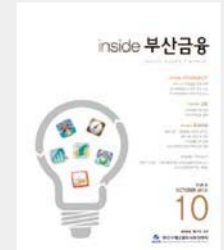
Vol.3 December 2012



Vol.4 April 2013



Vol.5 July 2013



Vol.6 Octob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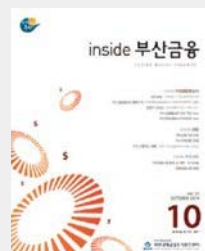
Vol.7 January 2014



Vol.8 Apri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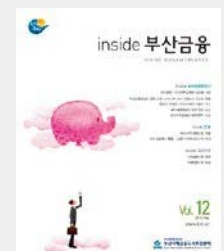
Vol.9 Jul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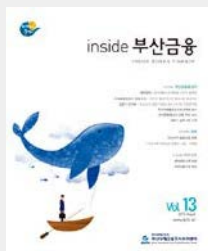
Vol.10 October 2014



Vol.11 January 2015



Vol.12 May 2015



Vol.13 August 2015



Vol.14 Novembe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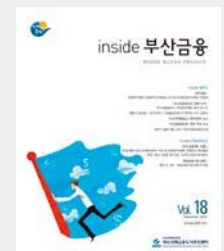
Vol.15 December 2015



Vol.16 June 2016



Vol.17 October 2016



Vol.18 December 2016



Vol.19 August 2017



Vol.20 Decembe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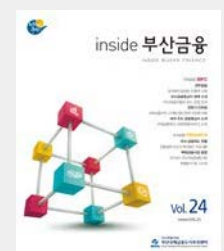
Vol.21 August 2018



Vol.22 December 2018



Vol.23 October 2019



Vol.24 December 2019



Vol.25 December 2020

TIME FOR BUSAN

Busan has taken a great leap forward to become the maritime finance and derivatives hub of Asia through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BIFC)**. To go further, Busan is preparing for the next stage of fin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fintech hub center, "U-Space BIFC".

The 63rd Floor, Apex of BIFC

Busan Metropolitan City will provide a free long-term lease for office space on part of the top floor (63rd) of BIFC to financial institutions for 25 years.

- Rental area : 165m² on the 63rd floor of BIFC (total area of the 63rd floor is 1,566m²)
- Savings : 1.25 million USD (50,000 USD annually x 25 years)

There are also additional attractive incentive packages, including tax exemptions and subsidies.

